

보도일시 (인터넷) 2025. 12. 18.(목) 11:00, 배포 2025. 12. 18.(목) 06:00  
(지면) 2025. 12. 19.(금) 조간

## 부산공동어시장, 반세기 만에 현대화!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식 개최
- 밀폐형 위판장, 자동 물류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중앙도매시장으로 재탄생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자)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 (면적) 부지 64,247㎡, 연면적 61,971㎡ / (총사업비) 2,422억 원(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 위판장\*으로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73년 현재 위치에 개장한 이후 별도의 재정비 사업 없이 운영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대체가 시급하였다. 또한 여전히 수산물의 양육·처리를 나무상자와 바닥 경매에 의존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었다.

\* '24년 기준 수산물 12.6만 톤 위판(고등어는 7.4만 톤, 국내 61.8%)

2010년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설계 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 수협(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부산시 수협)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5년 8월 해양수산부가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는 사업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협의체 구성 후 5주간 매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해소하였고, 같은 해 9월 최종적으로 합의된 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5년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화사업의 사업 기간은 47개월로 2029년 말 준공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콜드체인 시설과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밀폐형 위판장으로 재탄생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이 국내 위판 물량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 구역을 3개로 나누어 단계별로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사업 구역 내 대체 위판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된다. 국비를 지원하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김동희 (051-773-5446)



## □ 사업 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남부민동)
- (규모) 부지 64,247m<sup>2</sup>, 연면적 61,971m<sup>2</sup> (지하1층 ~ 지상5층)
- (총사업비) 2,422억원(국비 1,655억원, 시비 509억원, 자부담 258억원)
  - \* (지원근거) 「수산물유통법」 제22조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3조
- (사업내용) 시설 현대화, 자동 물류시스템 구축, 중앙도매시장개설 등
- (사업주체)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5개 수협\* 및 수협중앙회)
  - \*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부산시, 서남구기선저인망

## □ 조감도

